

2012

# PLATFORM ARTISTS

3RD FINAL EXHIBITION OF THE INCHEON  
ART PLATFORM RESIDENT ARTISTS

2013. 01. 18 - 02. 22

2012

# 플랫폼 아티스트

3rd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2013. 01. 18 - 02. 22

- 시각입주작가

KOO Bon-a 구분아  
KWON Yuni 권윤희  
KIM Bom 김봄  
KIM Sun-hee 김선희  
KIM Soohwan 김수환  
KIM Siha 김시하  
KIM Yunah 김윤아  
KIM Chang-ghi 김창기  
KIM Hyo-suk 김효숙  
MIN Jaeyoung 민재영  
PAK Bang-young 박방영  
PARK Sang-hee 박상희  
Benjamin PHILLIPS(UK) 벤자민 필립스(영국)  
SHIN Taesoo 신태수  
YHE Tzu-chi(Taiwan) 예추치(타이완)  
OH Suk-kuhn 오석근  
Woopsyang 읊쓰양  
Wii BOLTON(UK) 윌 볼튼(영국)  
LEE Sooyoung 이수영  
ISHIHARA Noriko(Japan) 이시하라 노리코(일본)  
LEE Ji-sung 이의성  
CHUN Yun-jung 전윤정  
CHUNG Yongil 정용일  
ZHOU Qi(China) 조우치(중국)  
Jakraphun THANATEERANON(Thailand) 짜까판 타나티라난(태국)  
CHA Ji-ryang 차지량  
Kamila SZEJNOCH(Poland) 카밀라 스제노치(폴란드)  
Karla&Andrés(Germany&Spain) 칼라&안드레즈(독일&스페인)  
HONG Ji-yoon 홍지윤

- 공연입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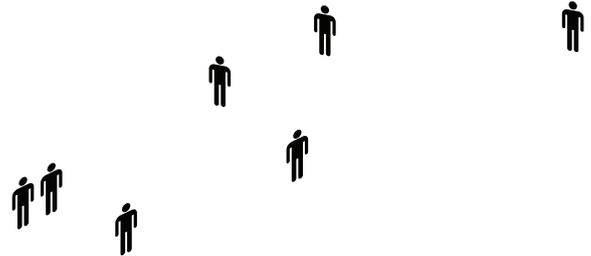
Manyo Company 만요컴퍼니  
SHIN Jaehoon 신재훈  
Yeonhee Company U-hee 연희컴퍼니 유희

- 문학·비평입주작가

MIZUTA Sayako(Japan) 미즈타 사야코(일본)  
AHN En-young(Australia) 안은영(호주)  
LEE Ji-hyun 이지현  
LEEPONG 이풍

- 국제교환프로그램 작가

JUN Sojung(Korea) 전소정(한국)  
CHUANG Hui-lin(Taiwan) 추앙 후이린(대만)



## 인천아트플랫폼 3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2012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 해안동 10-1번지에 예술가들이 창작의 동지를 튼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지난 1년 동안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기획한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천과 호흡하였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에게 지역의 의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작품창작의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 리서치투어, 외부 이론가들과 1:1 매칭을 통한 작품분석과 비평문을 통한 예술계 프로모션인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국내외 동시대 미술계 흐름에 대한 이해와 예술가에게 필요한 각종 법령과 지원제도 등에 대한 강의로 창작활동의 촉매제 역할을 위한 아트렉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지원프로젝트와 기획전시, 국제교환프로그램, 쇼케이스 등의 창작 발표의 기회를 가져 인천시민은 물론 타 장르 예술가와의 협업과 소통의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 3기 입주작가들의 결과보고전인 <2012 플랫폼 아티스트>는 예술가들이 1년 동안 인천아트플랫폼과 함께한 예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전시와 퍼포먼스와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2012 플랫폼 아티스트>에는 '플랫폼'의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비전과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해안동을 떠나는 3기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이 더욱 넓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빛나게 펼쳐지기를 응원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 2012 PLATFORM ARTISTS

3RD FINAL EXHIBITION OF THE INCHEON ART PLATFORM RESIDENT ARTISTS

2013. 01. 18 - 02. 22

# 2012 플랫폼 아티스트

3rd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2013. 01. 18 - 02. 22



物  
Physical Objects  
220X400cm Korean Paper Collage, Korean Ink, Color 2012

작품에서 눈으로 읽을 수 것은 무너진 벽과 건물의 잔해다. 이것은 새로 지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모서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비와 눈 등 자연의 현상들로 인한 얼룩들로 시간성을 느끼게 해주는 낡은 사물이다. 남겨진 돌, 무너진 벽, 말라버린 식물체, 나비 등이 암시하는 난제들은 이미 약간의 시간들이 흘러간 이후의 것이 되었다. 이렇듯 작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의 시간적 거리가 생기게 되고, 건조물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관조할 수 있는 미적대상으로 치환된다. 또한 벽자체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나 결국에는 자연의 산물인 듯 느껴지며 여기에 말라버린 나비가 풍기는 이미지가 더해져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를 통해 인간과 삶, 자연과 도시공간과의 긴장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표현하려 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폐허가 되가는 낡은 건조물은 자연화되어 갈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과 문명이라는 전통적인 대립개념을 화해시키려 시도하였다.



모두의 시간 혹은 각자의 시간  
One Time or All Time  
30min Single Channel Video 2012

권윤희는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북의 시를 모아 특정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한 단어들을 지워나가면서 남아지는 단어들로 제 3의 시를 만들어 나간다. 너와 나, 그리고 자연을 통해 남북의 시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나와 타자, 자연은 서로의 단어의 경계를 열어두면서 서로가 서로의 의미로 치환되기도 하고 그 이상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를 백령도 바다에 프로젝션 하면서 단절로 인해 멈춰있는 언어 또한 비밀의 언어로 다시 재구성한다. 프로젝션 한 영상은 백령도의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파도가 치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어떤 동네  
Some Village

112X194cm Acrylic on Linen 2012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기간동안 틈틈이 만석동의 팽이부리마을을 답사하고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동네를 화폭에 담았다. 그 중 <어떤 동네>는 지난 12월에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린 <<어떤 동네 이야기>> 전시에 출품되었던 작품들 중 하나이다. 작가는 입주 전까지 고지도에서 볼 수 있는 부감법을 차용하여 그렸다. 2012년 입주 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풍경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작품으로 현실과 사건이 부침하는 그 장소, 전망, 풍경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나 생생한 현실로 다가온다. 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그림지도' 형식은 실제 지형 안에 부감법적인 시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함치시킴으로써 좀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공간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재 작업은 어떠한 장소 속에 변질된 대상물들이 공존, 소멸하면서 자연과 서로 충돌되어가는 지점에 대해 연구, 발전시켜가고 있다.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우리의 기대만큼 깊고 끈끈하지 않다.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그뿐, 사람들은 그곳에 깃들었던 삶의 추억들을 쉽게 잊는다. 이렇게 인위적인 발전으로 인해 오랜 시간,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역사적인 흔적들이 도시의 여러 곳에 남겨져 있다. 단순히 목적적 대상의 공간으로써 내지는 보조수단의 역할로써 변모되어가고 있다. 김불은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사회 풍경 속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이야기들을 다시점의 서사적 구조 방식으로 기록해 보고자 한다.



휴지통 11

Bin Shelter 11

1070X1360X1465cm Object 2012

작가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물 중 쓰레기통을 변형하여 한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는 크기의 1인용 은신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상황, 타인들에서 벗어나거나 숨고 싶어 할 때가 있다. 때로는 의도된 고립을 택하고 이러한 행동을 자기위안과 치유로 여기기도 한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물들을 이용하여 제작한 은신처에는 이미 사물의 기능과 의미가 지워져 있고, 기묘하고 낯선 이미지만 남아 있게 된다. 이런 생경한 이미지로부터 물건은 비로소 의미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된다. 알려진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지워진 지점에서의 사물과의 우연한 맞닥뜨림, 그리고 이로부터 또 다른 가능한 세계와 대면하는 것은 작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은밀하게 각자의 은신처를 꿈꿔보길 기대한다.



부랑자들

Tramps

5min Single Channel Video 2012

제2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에 출품한 '욕망의 영웅'에 뒤이은 시리즈 작품이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욕망의 영웅' 속 주인공인 부랑자들이 둘러싼 드럼통 안에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세상에는 더 이상 신화나 종교, 영웅도 없다고 말한다. 또한 영웅도 부랑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별자로서 다른 누구보다 위나 아래에 있지 않고 때로는 함께 도움을 받아야 할 개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저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를 도우며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다.



Real Fantasy-home 4

74X110cm Digital Print 2011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개해온 Real-fantasy 연작 사진작품 중 하나이다. 2012년 제작한 White Out과 눈의 여왕 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위치한 작품으로 사진 및, 드로잉, 조각 등 복합설치중 그 일부이기도 하다. Real-fantasy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다룬 작품으로 실재의 나와 이상적인 나와의 괴리감에서 오는 낯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현실과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의 간극-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처럼 삶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환경과 이상적인 환경-을 통해 발생하는 당황, 낯설, 욕망, 상처와 같은 심리적 요소, 거기서 유추하게 되는 실제의 삶과 관계 맺기는 인공적인 환경을 통해 거꾸로 삶을 들여다보며 치유해나갈 수 있다.



숲  
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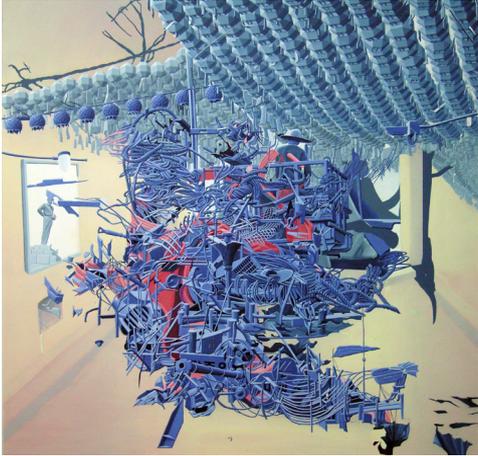
70X70X30cm Thread, Wood, Stainless Steel, Mixed Media 2012

이 작품은 밤의 숲, 비밀스럽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자연의 오염함을 표현한 작품으로 자연속에서 생활하며 낮과 밤의 대립에서 오는 충격과 매력, 기대를 작가의 경험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작가는 수많은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요소들 중 자연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의 존재는 발견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만큼 때로는 의식하지 못한다. 자연은 발견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실재하는 환상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자연의 발견을 위한 설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스한 한줄기 빛 아래서 문득 느끼는 행복감에도, 비 오는 날 우산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 속에서도 갖게 되는 감정들은 수많은 요소들과 상황, 그리고 방법과도 같은 우연한 만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한 순간의 에너지이자, 시각적으로는 기막힌 장면으로 느껴진다. 그러한 감정들은 지나간 기억처럼 비현실적인 몽롱함을 남기지만 반대로 자연에서 받은 행복한 인상은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하고 있다. 작가는 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관심 등이 점차 공간과 자연으로 넓혀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감수성들을 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놓여지다  
In Some Place  
600X600X300cm Mixed Media 2012

작품의 구성은 먼저 바닥엔 주변에서 수집한 잡다한 사물들과 제천에서 수집한 자연석이 놓여진다. 그리고 사각 프레임 안엔 인천에서 수집한 자연석과, 그 위로 여러 곳에서 수집된 조각들이 아래의 자연석의 형상이 복제되어 매달리게 된다. 서로 다른 곳에서 수집된 것들은 철창과 같은 곳, 바닥이나 천정에 매달린 것, 혹은 외부의 오픈된 바닥에 설치된 각각의 것들은 주어진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진다. 돌과 철의 서로 다른 이질적 병합을 통해서 무한의 공간속으로 확장되는 의미와 놓여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서해 5도  
Seohae 5-do  
130X130cm Acrylic on Canvas 2012

김효숙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현장을 통해 현대 사회 속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한다. 어릴 적부터 여러 도시개발 지역에 살아오면서 많은 신축공사 현장을 보며 자랐다. 처음에는 신축현장의 육중한 건축자재들과 시공 중 소음에 주눅 들었으나, 이내 어지럽게 엮혀진 현장에 모습에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발견했다. 완성된 구조물이 아닌 원형에 가까운 건축자재들의 모습을 차용하여 현대인이 겪는 심리적 상실감을 표현하고 현대사회를 비유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개개인의 다양함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구조 속에 강요되고 포장되어온 모습들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이번 출품작인 <서해 5도> 작업은 제2회 평화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백령도를 답사하면서 얻은 평화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방청(傍聽)  
Audience  
100X118cm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2012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늘 익명의 다수와 섞여 살아간다. 홀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매일 노력하고 있어도 반복되는 도시생활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패턴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일견 언제라도 그 상황의 연속에서 결락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정함과 익숙함 속의 낯설음이 항상 존재한다. 작품을 통해 작가는 그러한 정서를 담은 광경을 마치 CCTV등을 통해 엿보듯 되돌아본다. 작품은 남다르지 않은 삶의 단편/단면을 반추하여 집단생활 속에서 개별자로서 느끼는 피로와 가장(假裝)을 드러내고 각자의 체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나는 있다  
I Am

135X350cm Mixed Media on Rice Paper 2012

작가의 작업은 동양의 기존 화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적 삶의 표현인 조형 작업을 하고 있다. 천기적 요소로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빠른 필치의 서법을 통해 표현한다. 이는 무법(無法)이 법(法)이라는 석도(石濤)의 일획론(一劃論)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작가는 자유로움속에서 자신의 화법을 드러내고, 먹의 운용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서예 필법에 담긴 무의식적인 힘을 화면에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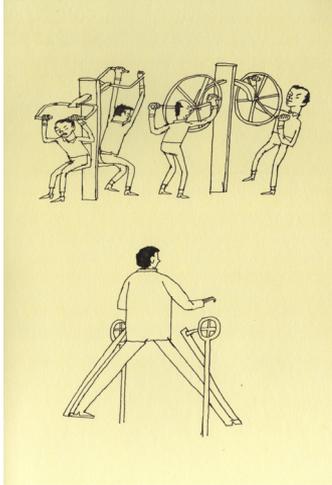


수영장

The Pool

55X150cm Acrylic on Canvas Sheet Cutting 2012

어두운 밤 이국적인 수영장의 환한 불빛을 중심으로 야경을 표현했다. 플라스틱 막을 투과해 뿜어져 나오는 빛들은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이유는 작가만의 독특한 제작 기법에 있다. 비닐 막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숲이 우거진 풀장을 그린 후 다시 표면에 부분적으로 칼집을 내 벗겨가며 수작업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재단한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며 때로는 활달한 드로잉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예칭처럼 흔적을 남긴다. 면의 칼로 조각된 촉각성은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미묘한 깊이를 만든다. 또한 이 촉각성으로 인해 원근을 바탕에 둔 재현성이 교란되면서 풍경 밖에 서서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과 교감하게 한다. 화면 안으로 따라 들어가던 시선은 틈틈이 파인 굴곡에 멈춰 담긴다. 음악이 आरोसाैजिन 표피가 관객과 이미지 사이에 형성하는 시각적, 물질적인 경계는 환영이 아닌 차가운 현실과 맞닥뜨리게 한다. 결국 이를 통해 야경의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표면의 조각들로 나타나 말하지 않지만 공간의 숨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Untitled-1 Incheon  
 Observations' Series  
 Pen on Paper Digital Reproductions 2012

영국 출신의 작가는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에 참여하였다. 전시된 총 31점의 드로잉은 동기간에 제작한 작가의 그림일기 중 일부이다. 몇몇 작품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운동을 돕기 위해 자유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을 사용하는 동네 주민들과 하나같이 똑같은 스타일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람들을 표현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인천에 머무는 동안 인천의 일상을 관찰하며, 주로 자신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경한 문화적 이질감들을 드로잉으로 나타냈다. 인천에서의 입주기간동안 모든 것이 작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독특한 감정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며 작가는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꿈만 같다고 토로한다. 작업에서 나타나는 생소하거나 기묘한 느낌들은 작가의 독특한 유머감각과 당시의 심리상태를 엿보게 만들고 있다.



두무진  
Dumujin

73X244cm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2012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곧 사라지게 될 만석동의 갯이부리마을을 기록하고 백령도의 실경들을 그려내는데 전력투구 하였다. 실제 땅을 밟고 현장에서 느끼는 감응을 옮겨내는 실경에 대한 천착은 작가가 진경산수화의 맥을 이어가는 화인으로 위치를 확인하게 한다. 구상과 추상이 둘이 될 수 없듯이 그는 실경을 통해 확인한 대상의 외형을 수십 번 마음속에서 헤아린 다음 그만의 방식으로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김치 김치  
Kimchi Kimchi

3min 18sec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두 가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그중 하나인 <김치김치> 퍼포먼스는 인스턴트 라면 끓이기를 중심에 놓고 사다리 위에서 깃털을 떨어뜨리거나,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들을 삽입하여 라면 끓이는 행위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언어와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습관들을 낯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하게 만들어준다. 대만에서 태어나 서양문화를 전공하고 번역가로 활동하였던 작가는 언어로 짜여진 세계의 고정된 의미들을 교란시키면서 새로운 의미로 번역하는 것을 작업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한국의 풍습  
The Manners of Korea, Portefax De Séoul  
112x140cm Digital C-Print 2012

작가는 근대 초 서양인의 시각에 의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진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담긴 엽서를 수집하고, 이를 재현하는 사진작업을 시리즈로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폭력적인 시각에 비판을 가하고 이를 그대로 한국의 전통으로 내면화시킨 한국사회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주체적으로 기록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열강 혹은 타자의 시선으로 해석된 우리의 전통은 오독되었고 현재까지 그 영향은 사회 곳곳에서 발견된다.

(중략)

당장 TV와 영화 속의 사극, 우리 주변에 가공하여 만든 여러 민속촌과 전통가옥들 그리고 한국의 홍보이미지 등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서 우리의 전통은 과거 우리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 모습은 근대화된 또는 서구화된 전통의 탈을 쓴 모습으로 존재한다. 가공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얼굴을 하고 앉아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이 아니며 타자의 모습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작가노트 중-



예술가들  
Artists

90X120cm Oil on Canvas 2012

작가의 회화작업의 골조는 '행복'이다. 작가는 스스로의 행복에 집착하던 어느 날 점차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타인의 삶이 행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인의 고민에 대해 귀 기울이게 된다. 주로 인터넷에서 사회 이슈를 찾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는 작가는 텍스트에 갇힌 불편하고 끔찍한 뉴스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시각화 한다.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를 이미지의 강력한 힘을 빌어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방식인 셈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나와 타인, 나와 세상이 결국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감정의 흐름이 개인 간에 어떻게 이어지고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지를 탐구한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예술가들>은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활동을 돌아보고 마무리 짓는 작품이다. 스튜디오 입주를 통해 작가로서의 현실적 자각과 작업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볼 수 있었던 2012년 작가의 경험을 작품으로 기록하여 작가들의 삶과 그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인천의 날들

Incheon Days

45min Video, Sound 2012

작가는 영국 리버풀에 살고 있으며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 해외입주작가로 참여하였다. <Incheon Days>는 입주기간동안 작가가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을 답사하며 수집한 이미지와 소리들을 조합하여 만든 영상작품이다. 인천의 일상 장면 속에 숨어 있는 세부와 질감 등을 차이나타운, 항구, 공장지대, 등을 배회하며 추출해내었다. 추출된 사진과 녹음된 소리들은 천천히 사라지면서 다른 사진과 소리에 중첩된다. 인천이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표현하였다.



고사리 정신  
Bracken Trance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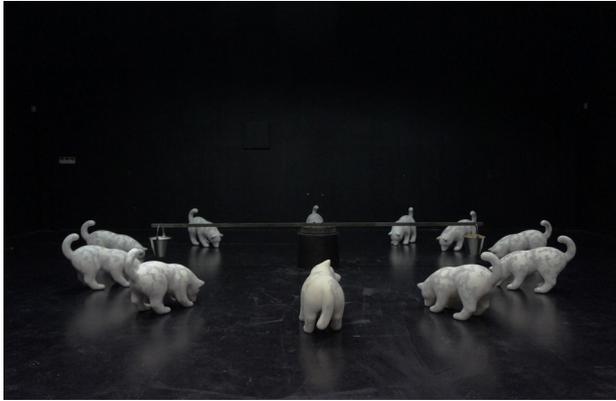
작가는 지난 입주기간 동안 2억 년 전 쥐라기 공룡과의 우정을 기억하고 있는 중생대 출신 고사리 영(靈)에 접신하기 위해 수련을 했다. 주술을 외우고 그믐밤에 음기를 받아 치성을 드렸다. 퍼포먼스는 인간제응을 희생으로 바치고 독주에 불을 지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고사리 영을 받은 작가가 중생대에 고사리와 함께 생존했던 233개의 생명의 이름을 공수하는 내용이다. 사제로 분한 작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고귀함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있는 현 인간들의 행태를 꼬집고자 고사리 영과 접신하여 인간 이전의 생명들을 공수한 그 깊은 뜻을 감히 헤아려보고자 한 것이다.



무제 두부2011-시리즈에서  
Untitled from Tofu 2011-Series  
90X110cm Inkjet Print 2012

“한국에 와서 2년이 됐다.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됐다. 친구도 생겼다. 근데 어느 날 도마 위에 작은 사각형으로 잘린 두부가 마치 나처럼 보였다. 쓰러지지 않게 규형을 잡으려는 모습이었다. 두부는 부드럽고 무너지기 쉽지만 의외로 무겁고 묵직하며 물을 많이 포함하고 냉장고에 랍을 씌우지 않고 깜빡 해버리면 바삭 말라버린다. 마치 우리의 마음 같다...”

나는 2008년 처음으로 내 마음을 두부에 담은 작업을 했고 이번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두부에 담은 작업을 시작했다. “당신은 요즘 뭔가 힘든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조금씩 얘기해준다. “요즘...” 누구나 꼭 그때마다 힘든 것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 시리즈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진행한 작업이다. 나의 힘든 것, 당신의 힘든 것, 누군가의 힘든 것. 다들 그런 마음을 품은 채 삶을 보내고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의 두부를 내가...내 두부를 또 누군가가...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 누군가의 얘기를 누군가와 나누다. 의미가 없는 듯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그런 얘기를 담은 것이 이번의 시리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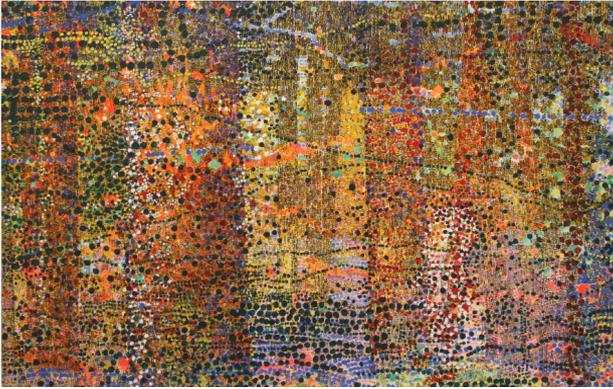
명  
Meong  
500x500cm FRP 2012

‘강아지가 멍하다.’ 여기서 멍하다는 것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이고 두 번째 의미는 ‘강아지가 “멍!” 하고 짖는 것’이다. 바닥의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심어 마리의 개들은 동세는 같으나 작가가 한 마리 한 마리 완성된 개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합성수지매김제의 중첩이 은몸에 쌓여간다. 이러한 연속적인 중첩과 완성된 형(形)으로서 작가의 반복적인 행위는 각기 다른 모습과 문양, 성격을 만들어낸다. 강아지들이 모여서 집중하고 있는 곳은 사료와 우유가 담긴 양동이와 양 끝에 걸려 원형으로 역회전하고 있는 기계장치 언저리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가공되어 지금껏 발전된 기계장치는 구조화된 사회시스템 하에서 어느덧 그들이 만든 가공품으로 우리를 역가공하고 있는 듯하다. 집단의 보편화된 행동과 생각 속에서 한 마리의 다른 행동을 하는 자각하는 강아지의 부름을 표현한 작업이다.



정체된, 지금은 마치 어둠  
Stagnant, The present is like dark  
19X28cm Drawing on Paper 2012

전윤정은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노트 모서리에 낙서를 하면서 마음속의 생각들을 끄적여왔다. 습관적으로 써내려간 낙서 위에 또다시 겹쳐 그리거나 귀에 맴도는 단어들을 써내려가며 작가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소소한 ‘생각과 감정’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느다란 펜으로 매우 작게 그리다가 점차 크게 키우거나 유기적인 형태로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을 변화시켜 왔다. 사회적 관계 속에 얽혀있는 복잡 미묘한 심리, 미처 표현되지 못한 생각과 타인과의 오해 등 감정의 파편은 이미지와 함께 깨알만한 텍스트가 들어간 드로잉으로 수집된다. 수집된 이미지는 오랜 작업 과정에서 시간의 단절이 주는 다양한 감정의 축적을 보여주며 칠하듯, 쌓고 겹치면서 형태를 구축하여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이번에 출품한 불편한 드로잉들은 그녀가 입주 기간이 끝나고 런던으로 이동하여 생활하면서 달라지는 감정들을 드로잉복에 그린 것들이다.



자연의 신전-명상

182X260cm Acrylic on Canvas 2012

작가의 작품세계의 주제는 자연과 영혼이다. 그는 삶과 죽음의 중간세계, 육체와 영혼의 중간세계를 표현한다. 이 세계는 자연과 영혼이 추상과 형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공간이며 점(點)으로 표현되고 있다. 원초적인 추상성을 띄고 있는 점은 추상도 형상도 아닌, 또는 두 가지 모두이기도 한 영상적이며 초월적인 아우라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점은 중성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간혹 격자무늬 선의 겹침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에너지로서의 자연의 기를 나타내기도 하며 자연과 인간의 고리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다. 표현주의적 경향과 원초적인 우리의 오방색이며 팝 적인 칼라이기도하다. 작가는 어렸을 때 민간신앙 체험에서 비롯된 깊은 인상이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 속에서 중간세계의 영역인 영혼의 매개체가 보는 인간의 삶과 죽음, 희열, 의지, 고통 등을 점과 선의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의식하지 않는 속에서 작품이 이끄는 세계로 들어와 작가와 작품이 하나가 되어 잠재된 한국인의 독특한 감성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가 되는 소통을 원한다.



ZQ2012.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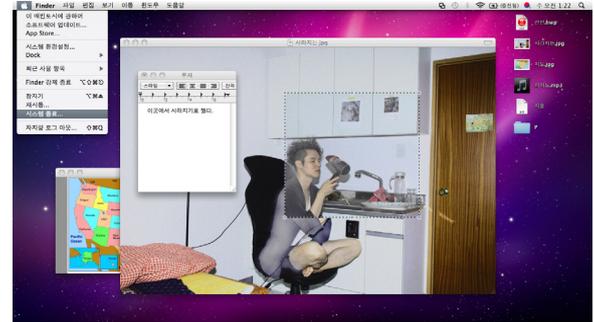
35x27cm Acrylic on Canvas 2012

중국 흑룡강성에서 출생하여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우치는 세상 만물은 아무런 차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관객들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간이나 돼지, 식물들이 모두가 똑같은 천상의 피조물들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고대 신화 속 - 산해경의 기묘한 피조물들을 떠올리는 - 의 세계처럼 자연과 문명이 분리되기 전의 모습들처럼 보인다. 거기에는 아무런 분리도 차등도 없이 혼돈의 상태가 곧 질서인 세계로 작가는 인간이란 종의 상상력에 제한받지 않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Mr. Siam Suicide in IAP  
Mixed Media 2012

태국 출신의 작가는 예술이 삶이고 삶이 곧 예술이라 믿는 작가는 매일 매일의 일상 모든 것들에게서 예술적 영감을 받고 있다. 주로 태국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설치와 영상,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왔다.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기간 동안 분쟁지대에 놓인 백령도로 가는 답사길에서 찍은 사진이미지들로 조립된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이 작품은 입주기간동안 사용한 자신의 명함과 바코드 인쇄물들을 모아 즉흥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굳이 예술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워 보이는 작품에서 그는 예술과 삶의 구분을 희극적으로 지워내고 있다.



탐정파업-동기화  
Detective Strike-Synchronization  
11min 2 Channel Video 2012

“탐정은 타인의 사건을 의뢰를 통해 마주하며 해결을 위해 몰입한다.”  
(탐정수첩 첫 번째 문장)

탐정의 몰입과정을 경험한 C는 피로감을 느끼던 중 H의 새로운 의뢰를 받는다.  
‘P탐정을 찾아달라.’

피로감. 그것엔 탐정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과 사건에 몰입하며 놓쳐버린 사적 관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사라진 탐정은 결코 자유로운 역할이 아니었고 자신이 지나온 모든 과정을 누군가에게 인수인계하고 자신을 둘러싼 배경에서 떠나려한다. P는 마지막으로 의뢰받은 사건의 의뢰비로 비행기 티켓을 산다. 탐정이라는 역할이 갖고 있는 비현실성은 미해결의 영역 속에 어떤 응시와 몰입을 지낸다. 그 역할을 몰입하는 작가는 결국 현실을 살아가고, 충돌하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경력력, 가족, 결혼, 그것에 몰입된 대한민국. 스스로에게 벌어진 사건을 풀기위해 노력하지만 튕겨져 나가지만 하는 상황에 P는 그 튕겨지는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여 가벼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해결을 생각한다. 다른 나라로 떠난 탐정 P와 탐정을 둘러싼 공기의 진술과 선언. P를 쫓으며 C는 P를 몰입했고, C는 P를 동기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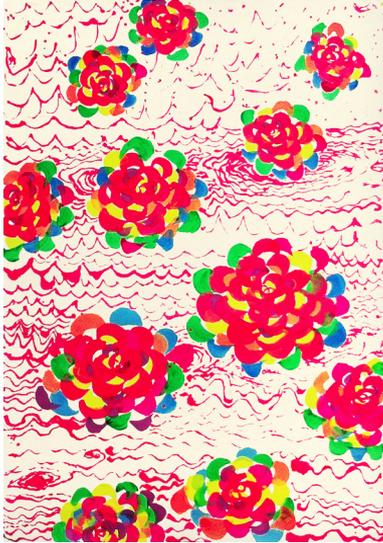
All I wanted in Korea  
Photos-Album on Facebook 2012

카밀라 스제노치는 그동안 도시를 대표하는 심볼(Symbol)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작업해왔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주기간동안에도 송도와 월미도, 자유공원 등을 답사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나타나는 기념비들을 돌아보기도 했다. 이번 결과보고전에 출품한 작품 <All I wanted in Korea>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위에 작가가 올라가 있는 장면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관람객 또는 인터넷 방문자들과 소통을 하는 작품이다. 한국의 역사,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동상에서 작가가 원했던 퍼포먼스를 간접적으로 연출하면서 유희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Zoomwooz-Working in Progress  
2min Single Channel Video 2012

칼라와 안드레즈는 독일과 스페인 출신의 작가가 결합한 팀으로 주로 도시의 미니어처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비디오퓌로 담은 영상작업을 해왔다. 그들은 도시와 도시간의 차이점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결국 모든 도시들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시의 모습들을 종이박스를 이용해 미니어처로 재현해내고 카메라의 텔레스코프와 마이크로스코프를 극단적으로 오가며 도시의 속살과 껍데기를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 그렇게 보여지는 작품은 음습하고 불길한 디스토피아를 연상시키며 도시의 부속 기관으로만 존재하는 우리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어진바다-이야기  
The Ocean of Mother Nature -  
A Tale of the Ocean  
210x150cm Color on Jangjuk 2012

시서화가 하나를 이루는 홍지윤의 작품에는 구애받지 않는 율이 흐른다. 율(律)은 질서이면서 음악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상의 질서란 기실 고도로 계산되어 조화로운 규칙의 총합체인 음악의 질서와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실재 작가가 백령도에서 진행한 어진 바다 프로젝트는 자신이 그린 그림과 빨래를 해변가에 널고 장구를 연주하는 퍼포먼스였다. 그림으로써 작가는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바다(海)와 같은 어머니의 세계가 가진 조화로운 질서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조선천재 김해송  
KIM Haesong the Genius in Joseon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만요(漫謠)는 1930년대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주요한 장르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발생한 코믹송, 익살과 해학을 담은 우스개 노래 장르를 일컫는다. 당시 주류를 이루던 트로트나 신민요와 달리 일상생활의 소소한 내용을 자유로운 가사에 담아냈으며 당시 억압된 식민지 사회를 뒤돌아 풍자하는 비판성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2012년 8월 26일에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진행된 "조선천재 김해송" 쇼케이스는 김해송의 작품을 새롭게 재해석한 만요컴퍼니의 라이브 노래와 만요컴퍼니의 예술감독 윤중강의 곡에 대한 설명이 가미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서진 별곡  
Jeongseojin Story  
70min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연극연출가인 신재훈은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인천의 해가 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정서진별곡”을 썼다. “정서진별곡”은 인천의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된 희곡으로 8월 15일 무대독회 형태로 발표되었다.

인천, 개항장의 꿈을 안고 가장 먼저 새로운 문화에 가슴을 열어젖힌 곳. 하지만 이곳은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쓸쓸함이 감돕니다. 이곳에 정서진이라는 관광지가 조성되어 문을 엽니다.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폐허가 늘어난 것이지만 현실과 무관한 과잉된 희망, 기대의 살포는 계속됩니다. 지금의 정서진의 모습이 작품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정서진에는 기대와는 달리 일몰을 보고 즐기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횡한 조형물과 도시 계획의 뒷수습으로 보도블록을 깔고 조경사업에 투입된 공공근로 참여자들만이 오갑니다. 허황된 꿈을 수습하며 정서진에 있는 사람들, 힘겹게 연명하며 남이 저지러놓은 꿈을 수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봤습니다.

- 작가노트 중 -



퍼니 도깨비와 미스터 흑부리  
Funny Dokkaebi and Mr Hokburi  
60min Performance Document Video 2012

인천아트플랫폼에서 2012년 8월 25일에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진행된 흑부리영감은 지속적으로 개작 보완하여 최근에는 <퍼니도깨비와 미스터 흑부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퍼니도깨비와 미스터 흑부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 연희극으로 우리 고유의 설화인 '흑부리 영감 설화'에 도깨비 설화를 접목시켜 기존 이야기를 한층 재미있게 만들었다. 또한 사물놀이와 구음을 접목하여 전통연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과감히 무너뜨린 새로운 퍼포먼스로 어린이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전통 타악이 주는 박진감 넘치는 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



“Voyager in Voyager out vol.3 Toward a Minor Room” 전시전경

Exhibition View on “Voyager in Voyager out vol.3 Toward a Minor Room” 2012

미즈타 사야코는 일본의 큐레이터로 2011년 일본을 강타한 지진 이후에 시작한 “Voyager in Voyager out”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전시 기획에 깊이를 더하고자 입주하였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계의 어떤 도시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진 이후 본인이 도쿄에 거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선택되어진 것이고 그 삶은 다른 어떤 해외의 도시 속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그녀는 장소, 공간, 위치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생각했고 최근의 전시인 “Voyager in Voyager out”를 기획하기에 이르게 됐다. 이 전시의 키워드는 ‘움직임’, ‘여행’, ‘이주’, ‘항해’, ‘후기 여행산업’ ‘걷기’, ‘산책’, ‘장소’, ‘전위’ 등이다. 이러한 키워드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늘어나거나 서로 결합해서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황이다. “Voyager in Voyager out”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도쿄의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서 4번의 전시를 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다른 입주작가들과 인터뷰를 나누고 그들에 작품세계에 대해 고찰한 후, 그 결과물을 책자로 출판할 계획이며 추후 “Voyager in Voyager out” 시리즈 전시에 참여작가를 선정하여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다.



“Incheon, more than just an international airport”

EN YOUNG AHN

Until early this year, Incheon had never inspired me to make a stopover. For me, the city represented the unavoidable transit, where South Korea's major international airport is, and from which I usually wanted to get away as soon as possible, to Seoul, where all the excitement await. However, I was finally going to explore the city of "New Seoul" (a local translation of Incheon) when I landed at Incheon airport on a chilly spring day. This opportunity was given by the Incheon Art Platform (IAP) and its residency program.

The IAP is an exciting, multi-lingual arts centre consisting of exhibition spaces, lecture, workshops, conference rooms, residential studio spaces, a library, craft shop, cafe and residency apartment building (called the Ocean House). Its core mission is to provide the local community with life-enriching cultural services, and to foster all forms of creativity but privileging contemporary visual arts. Through its residency program, the centre aims to be a platform for artists, curators, exhibitors, literary writers, critics of art, film and theatre, and musicians and dancers, to exchange their experiences, knowledge and expertise, and to broaden and advance their practices. Based on the country's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hub, the IAP ambitiously wants to reach out beyond borders to bring artists, curators and other high-profile arts figur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o engage with a global art community.

The IAP is located within walking distance from Incheon Station on Line 1 of Greater Seoul's continuously expanding and evolving subway system, which is probably the best subway line for exploring Seoul, its galleries, museums or artistic attractions. The IAP occupies several metres of a street bordering Incheon's historic Chinese Consulate area (near South Korea's only official Chinese Town) and its restored Japanese Consulate. The majority of its three-story building is converted walkovers from the 1930s/1940s, a part of Incheon associated with the city's long maritime history, as well as many historical anecdotes of the nation's tumultuous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Traditionally, Incheon has been the country's main trading port on route to China, India and beyond. It also served as the major gateway for the country's modernisation and urbanisation through its open cooperation by Japan. The city is remembered by many Koreans and foreigners affected by the Korean War (1950s), and for the famous Incheon Battle (known as Incheon Landing) that led to the capture of Seoul by the United Nations and South Korean forces. A statue of General Douglas MacArthur, a memorial to this battle, sits in the middle of Jamsil, or 'President' Park, located on a mountain, within a fairly easy walking distance from the IAP. I, together with other newly arrived IAP residents, was given a glimpse into these fascinating histories of Incheon, through a local oral history-guided walking tour, one of many educational and storytelling programs offered by the IAP. Recently, one of the most remarkable parts of my IAP residency was the MacArthur-like sprinter and yet normally relaxed view of Incheon only from the commanding position of the MacArthur statue against a backdrop of nature, which I enjoyed almost every morning for three months.

The Incheon Art Platform was developed by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as part of its 'Old Town Restoration Project' to preserve, manage and promote its

“인천, 국제공항 말고도...”  
 “Incheon, more than just an international airport,”  
 Art Monthly Australia(Nov. 2012), pp.26-27 2012

안은영은 한국 출신의 큐레이터로 10년 전 호주로 유학을 떠난 이후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입주기간동안 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다수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한국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자료조사에 매진하였으며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과 호주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평론글 및 전시 기획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타임시트  
Timesheet

5min 16:9 Digital Moving Image 2012

영화평론가인 이지현은 입주기간동안 <프랑스인, 김명실>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였다.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2013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전시 중인 <타임 슬립>은 <프랑스인, 김명실>의 중간 중간 나오는 인천과 프랑스의 모습을 편집하여 만든 짧은 영상이다. 프랑스에서 오래 유학한 작가에게 2005년의 유학시절과 2012년의 플랫폼의 입주생활이 신기하게도 겹쳐졌고 두 공간에서 너무나 흡사함을 느꼈다. 이러한 느낌을 전하고자 정교하게 편집한 영상을 통해 2005년의 노르망디 지역과 2012년의 인천을 타임슬립하여 합체한다. 프랑스의 소도시 캉과 한국의 인천,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모습을 담은 무빙이미지들의 병치를 통해서 직선의 시간이 해체되고 시간의 모형은 재정립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이방인 그리고 학습자로서의 교집합을 담아내고자 시도했다.



피뽕 한 번, 거짓말 두 번!  
Malingering Once, Lying Twice!  
Book 2012

2012년에 출간된 <피뽕 한 번, 거짓말 두 번!>은 작가의 신간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작동화이다. 주인공 유빈이가 엄마의 공장 개업으로 인해 찾아온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엄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이었던 유빈이는 '피뽕'이라는 방법으로 엄마와의 관계를 예전으로 돌리려 한다. 그러나 유빈이는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문제에서 도피하기 위한 '피뽕'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곰지락'을 선택하게 된다. 이 외에 작가는 입주기간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를 어린이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한 <비정규씨, 출근하세요?>라는 책에서 두 번째 챕터 '빨간 딱지'라는 원고를 맡아 직접 취재하며 집필했다. 또한, 서해 5도 답사를 하면서 백령도 점박이물범에 관심이로 점박이물범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동화 <점박이 물범 두올이>를 집필 했으며 2013년에 출간될 예정이다.



May Fair Boy

5min 25sec Single Channel Video 2012

일상과 예술의 경계는 모호하다. 그 경계를 구분 짓는 기준은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있고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고,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일 수 있을 것 같다. 작가는 그 모든 태도를 예술로 보지는 않지만 인물을 둘러싼 총체적 아우라가 그 행위를 예술로 민게 만드는 마술적 순간이 있음을 말한다. 최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가에게 그러한 마술적 순간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반적 시각에서 누군가는 더 일상의 범주에, 누군가는 더 예술의 범주에 위치 될 수 있겠지만 작가는 그들을 예술가적 태도를 지닌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작품 안에서 이야기들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했다. 작가는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 국제교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Taipei Artist Village에 입주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였다. <My Fair Boy>는 타이완 남부 자이에서 활동하는 목각인형 제작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작품의 도입부에서 부터 인형 조각을 위한 이상적인 길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가 만든 작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는 그의 태도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피그말리온의 이야기가 겹쳐진다.



The Totem of Life

Dimension Variable Paper 2012

대만출신의 작가는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 국제교환프로그램으로 인천에 왔다. 도시의 오래되고 철거되어가는 건물의 잔해들을 마주친 작가는 그것들과 함께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역사성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도시의 소멸과 재생역시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부분 부분 절단된 신체의 특정부위들을 배열하여 만들어낸 The Totem of Life 라는 작품명은 도시 속에 묻혀버린 인간의 존재에 의문을 표현한 것이다.



2012

# 플랫폼 아티스트

3rd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2013. 01. 18 - 02. 22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발행인 이승미  
발행일 2013. 01

전시 기획 및 진행 사승현  
인턴 김보라, 박진희, 이민영, 주소형, 한은정

© 인천아트플랫폼, 2013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저자와 작가 및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3 Incheon Art Platform,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copy hol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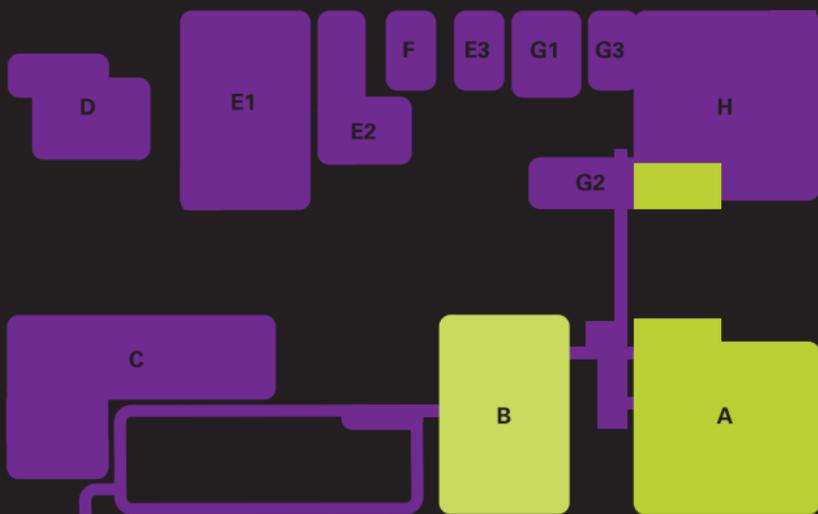
Designed by Thats Design Studio

# PLATFORM ARTISTS

3RD FINAL EXHIBITION OF THE INCHEON  
ART PLATFORM RESIDENT ARTISTS

2013. 01. 18 - 02. 22





## INCHEON ART PLATFORM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218-3 JEMULLYANG-RO, JUNG-GU, INCHEON, S.KOREA

T.032 760 1000 F.032 760 1010

[www.inartplatform.kr](http://www.inartplatform.kr)